

지역아산병원의 직원과 환자, 지역주민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치료 이후의 삶의 질을 생각하다



보령아산병원 재활치료센터 의료진들.

보령아산병원은 2025년 7월 충남 서남부권에서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되며 응급환자의 초기대응부터 중증 치료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 소아환자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365일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지역 내 재활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활치료센터를 열었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 필수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령아산병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현실에 맞춰 재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병원 치료 이후 일상회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용원 재활치료센터장은 “우리 재활치료센터는 보령지역 급성기 병원 중 유일하게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진료분야를 잘 선정하고, 시에서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좋은 사례가 바로 우리 재활치료센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치료 이후 삶을 이어주는 의료 안전망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나 뇌졸중, 파킨슨 환자들은 꽤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통증치료와 간단한 운동치료만 진행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천안이나 대전 같은 인근 대도시로 가야 했어요. 재활치료는 정기적으로 장기간 받아야 하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며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의 부담이 상당히 큼니다. 우리 재활치료센터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활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보령시에서 병원 치료 이후 삶을 이어주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죠.”라며 구본수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센터

터의 의미를 강조했다. 보령아산병원은 아산재단 산하의 서울아산병원과 금강아산병원 재활치료센터, 대전의 재활전문병원을 벤치마킹해 치료실 구조를 계획했다. 완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기둥과 벽을 세우고 장비를 도입했다. 전문 치료사를 영입해 센터를 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센터 개소 후에도 할 일이 많았다. 치료사들은 홍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하며 리플릿을 만들고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됐다. 개소 초기에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계속되며 대기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급기야 치료 순번이 너무 늦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전문 치료사를 충원하기도 했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재활치료센터가 되도록

현재 재활치료센터는 전문의 1명, 외래 접수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2명이 근무하며 입원 환자를 우선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동시에 외래 환자들도 순차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해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중추신경발달 재활치료, 매트훈련, 보행치료 등 운동치료와 함께 연하, 인지치료 등 작업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최신 재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신경계 손상, 노인성 보행장



운동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환자가 로봇재활 치료기로 보행훈련을 하고 있다.

애 등 보행훈련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로봇 재활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환자와 치료사가 1:1로 맞춤치료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

“환자들이 비교적 고령에 장애와 만성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치료 집중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령지역 재활치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서 통합돌봄서비스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본수 물리치료사는 “앞으로 보령시 재활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전문 치료를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재활치료센터가 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글 편집부